

知성과 霸氣

• • •



4 특별초대석/송 자 연세대학교 총장
 자격을 엮어주는 곳이 아니라 자부심을 심어주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허선영

움직이는 대학

14 기말고사, 그 뒷모습/최호선

스승의 그림자/유치환

20 여자는 꽃으로 때려서도 안되는 거라네/황양미



23 특집/대학 문화, 대학가 문화
 거부할 줄 알아야 창조할 수 있다/유재천
 이 커다란 '빛'을 어떻게 갚을 텐가/이만재
 부끄러운 대학과 부끄러워 하지 않는 대학생/도정일
 동아리 문화, '함께 사는 삶'을 일구는 텃밭/이승희
 '청산'과 '배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강준만

달라지는 세상

46 소말리아-그 끝모를 기아와 내전의 땅/류종권

과학 속에 숨은 이야기(5)

51 산소 발견에 얽힌 18세기 프랑스 과학자들의 이야기/이필렬



58 나의 꿈 나의 삶/임병국
 특별한 의사를 꿈꾸는 평범한 환자의 먼 길/이대길

세계의 대학/게이오 대학교

74 한 우물만을 고집하는 현대 속의 '학당'/이창위

정보통신으로 본 한국 역사(8)

84 문자의 변천과 한글의 정보 공학적 특질/진용욱

잡지 「지성과 패기」

1993년 7, 8월호(통권17호) • 1993년 7월 21일 발행 • 격월간(비매품) • 1990년 9월 18일

등록(마-1646) • 발행인/손길승 • 편집인/최시호 • 발행처/선경그룹

• 「지성과 패기」는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코자 표지에 비닐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64 한국의 섬/소매물도
 남녘 바다 질푸른 신비가 안 굽이치는 곳,
 아작은 환상을 가져도 좋다 /이창기



80 캠퍼스 패션의 사회학/1980년대
 수수함에 담긴 '교복 자율화 세대'의 자부심/유석훈

짧은 글 깊은 생각

90 이 젊음들을 어찌할 것인가?/최종욱

캠퍼스 토론

94 글로벌리제이션과 한국의 선택

한 예술가의 초상

102 마이너 문학의 순교자, 다자이 오사무/박명옥

툭아보는 현대사

109 1920년대 독립 운동 세 세력의 민족협동전선 결성 노력/이균영

50만원 들고 한달간 중국 여행

114 그들이 왜 '짜수'를 좋아하는가 하면/서인석

나의 대학 시절

118 내 시의 디딤돌이 된 미당 선생 화형식/정호승

하이테크의 물결

122 마장거 Z가 바로 곁에 와 있다/이범희

시

127 아코디언 다방/장석남

이 책만큼은

128 김형석 교수가 뽑은 대학생 필독서 10권

한민족 건강 관리법

132 단전 호흡, 가장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간다/안동환

동아리 탐방/청주대학교 산악반

136 이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조철희

병역, 알고 계십니까?

138 임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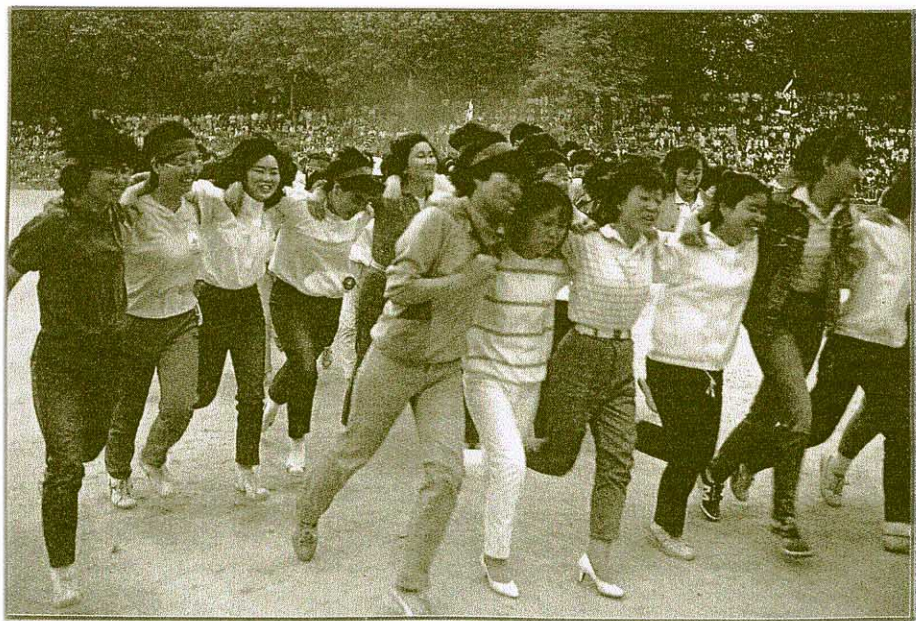
편집자에게

140

수수함에 담긴 '교복 자율화 세대'의 자부심

유석춘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성 문화나 대중 문화와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대학 청년으로서의 독특함을
지니려 했던 것이 80년대의 대학 문화였다.



▶ 80년 '민주화의 봄'이 좌절된 이후 80년대의 정치적 상황은 절박하고도 암울했다. 학원에는 이른바 '짹새'라고 불리는 사복 경찰들이 상주해 있었고, 집회나 시위가 열릴 때마다 온몸을 구타당하며 끌려가는 남학생과 머리카를 잡혀 연행되는 여학생들을 보기 일쑤였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거부가 일반화되어 있음은 물론이었고, 또한 '운동을 할 사람들'은 학점과 젊은 대학생으로서 누리는 낭만적인 생활을 정권과 기성 세대에 대한 투쟁과 맞바꿔야 했다.

독재 정권이라는 하늘을 이고 사는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사회에 대한 청년의 사명 의식은 사회의 엘리트로서의 의식과 결합되었다. 그들의 패션 문화는 90년대의 그것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촌스럽고', '무미 건조하고', '보잘 것 없지만'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는 '겉모습에 신경쓰는 것은 지식인답지

않다'는 묘한 자부심이 스며 있었다.

아전 잠바와 교련복 차림의 남학생들과 퍼머기 없는 커트와 단발 머리에 바지를 입은 여학생들은 80년대 초반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값비싼 정장에 요란한 액세서리와 긴 퍼머 머리를 한 여학생은 극히 소수였으며 옷차림에 신경쓰는 남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간혹 모양을 내는 남학생이 있을라치면 '날라리' 학생으로 인식되어 암묵적인 이유와 거부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나마 그들에게 '유행'이나 '패션'의 흔적을 찾았다면 남녀할 것 없이 청바지에 잘 어울리는 패션 운동화였던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식스' 등의 신발을 신었던 것이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 졸업정원제의 실시로 대학의 구성원이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84년에 학원 자율화 조치가 실시되면서 대학의 겉모습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변화라면 변화랄 수 있고 80년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이른바 '교복 자율화 세대'였다는 것도 캠퍼스의 패션 문화를 변화시킨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양적인 증대는 상대적으로



엘리트 의식의 지하를 유발했다. 그리고 사복 경찰이 철수하였기에 학생들은 더이상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매일같이 확인하는 질치를 거치지 않고도 캠퍼스를 중단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자율적 영역의 확대와 함께 정치적 상황과 거리를 두는 문화적인 '여유로운'을 갖게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내 집회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었고, '반제', '반독재', '투쟁'과 같은 구호로 시작되는 기속적인 교내 집회는 항상 진한 최루탄 냄새와 깨진 화염병의 파편으로 마무리되었다.

무채색의 캠퍼스가 유채색의 활기를 갖춤과 함께 70년대의 낭만주의적 운동권에서 운동의 과학화, 이념화가 급속히 진전되던 시기가 바로 80년대 초반과 중반이었다. '운동권'과 '비운동권'이라는 말이 매스컴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사회 전반에 익숙해지던 시기도 바로 이때였다. 그만큼 8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 문화는 '양극화'로 상징되었고 이른바 '운동권' 학생과 '비운동권' 학생은 옷차림에서부터 큰 차이가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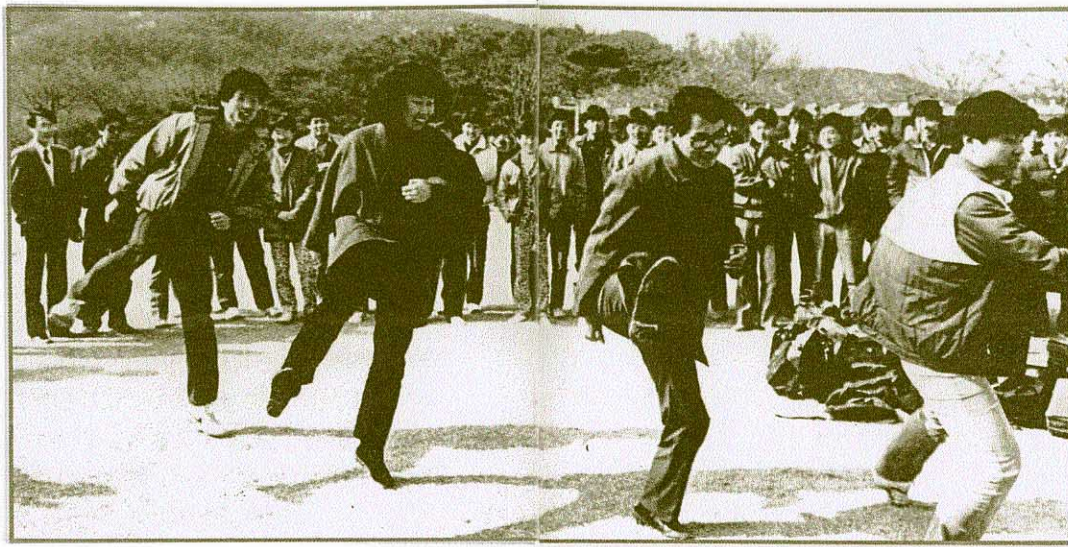
교련복 상의에 군복 바지는 운동권 남학생들의 '교복'과도 같았다. 그들 사이에서 쓰는 여학생 후배의 남학생 선배에 대한 '형'이라는 호칭이 그러했듯이 운동권 여학생들의 겉모습은 남녀 구별 또는 차이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었다. 화장기 한 점 없는 얼굴에 바지와 티셔츠, 소박한 머리 모양이 이들의 특징이었다. 당시만 해도 남학생들은 패션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운동권과 비운동권 남학생들 사이에는 그다지 가시적인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던 데 반해, 운동권 여학생들의 모습은 여타의 여학생들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 같다.

패션 문화의 양극화는 대학 공동체 내에서의 단절을 가장 실감나게 했다. '양극화'가 가지는 가장 큰 폐해는 이질화와 무관심이다. 70년대의 대학생은 시위를 하고 있는 동료 학생들을 보면 시위 현장을 기웃거리기도 하였고 또한 어쩌다가 함께 돌팔매질을 하기도 하였다면, 80년대 중반의 클래식메이트는 구호를 외치고 돌을 던지는 '익숙한 얼굴'들을 못 본 채 그냥 지나치기가 일쑤였다.

교복 자율화 세대인 80년대 중반의 남녀 학생들을 보면 대학 초년생의 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됐다'는 느낌을 주었는데, 특히 '운동권'이 아닌 여학생들의 옷차림은 90년대의 그것과 보다 근접해 있기도 하고 어쩌면 보다 화려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대학의 '또 다른 문화'의 주역인 운동권 학생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유래하는 것이리라.

'운동권' 여학생들이 좀처럼 '여성다움'을 내색하지 않은 반면, 이들의 패션은 '여성다움'에 대한 강조와 '여대생'이 가지는 혜택받은 지위에 대한 과시로



특징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손질한 퍼머머리와 귀고리·반지 등의 액세서리, 격렬한 시위 현장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하이힐, 이른바 메이커 옷, 화려한 화장과 향수 냄새가 이들의 특징이었다. 이들에게서는 '지식인'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젊고 발랄하고 화려한 여대생'의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생각의 차이'가 이런 겉모습의 차이를 가져왔겠지만, 이렇듯 이질적인

외양들은 그들의 '사고 방식의 차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래도 지금 90년대와는 달리 80년대의 대학생에게는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대학생 의식' 같은 것들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서 대중 문화에 이끌려 가는 듯한 경향이 그리 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대중 문화, TV 문화에 대한 거부감과 경멸감마저 있었던 것 같다. 기성 문화나 대중 문화와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대학 청년으로서의 독특함을 지니려 했던 것이 80년대의 대학 문화였다. 그들의 '문화적 현상'이 가장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장을 '축제'라고 본다면 80년대의 대학 축제는 70년대나 90년대와는 사뭇 다르다. '쌍쌍파티'식의 70년대 '축제'를 벗어나서 보다 집단주의적이고 민중 지향적인 성향을 가졌던 것이 80년대의 이른바 '대동제'였다.

그들의 놀이 양태는 줄다리기가나 고싸움, 마당극, 정치 촌극, 해방춤 등 다분히

반정부적이고 민중 지향적이었다. 모처럼 차려입고 파트너와 함께 참여하는 70년대 식의 축제와는 그 의미나 지향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또한 징이나 팽고리, 장구 소리는 대학 곳곳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음'이기도 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강한 집착'이기도 했다. 이들의 놀이는 이러한 민속 악기의 장단에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즐기는' 대동 놀이의 모습을 띠었다.

대중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경계심, 전통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대중·상업 문화에로의 포섭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던 80년대 대학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90년대와 비교해 볼 때, 그들의 패션은 훨씬 더 보수적이고 비개성적이었다. 자유분방함이나 개성 표현의 극대화가 용인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였고, 지금처럼 젊은 대학생들을 겨냥한 패션 상품이 덜 전문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으며, 과외가 금지되었던 시절이라 이런저런 모양을 부릴 자금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였기도 할 것이다.

지금 한창 더위가 부르익고 있는 대학 교정 곳곳에는 짙어가는 녹음과 함께 짧은 치마나 반바지 차림을 한 남녀 학생들의 시원스러운 모습이 한층 더 이 여름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특히 요사이 화려한 색상의 반바지였다 맨발에 샌들을 신은 남학생은 눈여겨 보기가 무색할 정도로 많아졌다. 이에 반해 80년대 대학의 여름날은 긴 바지와 손수건으로 더위에 대한 저항력을 애써 길러야만 했었던 시절이었다. 아마도 2천년대 여름의 대학 캠퍼스는 대학 잔디밭 여기저기에서 반라의 모습으로 일광욕을 하는 썬텐족들이 생김런지도 모를 일이다. ㉞



80년대 중반 이후의 대학 문화는 '양극화'로 상징되었고 이른바 '운동권' 학생과 '비운동권' 학생은 옷차림에서부터 큰 차이가 났다. 교련복 상의에 군복 바지는 운동권 남학생들의 '교복'과도 같았다.